



오페라 달빛동맹, 빛고을 물들이다

광주시립오페라단 '안드레아 세니에'...29-30일 광주예당 대극장

'시대의 불꽃을 품은 사랑과 혁명의 서사시' 광주시립오페라단이 오는 29-30일 '2025 달빛동맹 교류공연'으로 대구오페라하우스 제작 오페라 '안드레아 세니에'를 무대에 올린다.

광주서 첫 전막 무대 대구오페라하우스 제작 마르첼로 모타렐리 지휘



모타렐리 아야바즈안 릴라리

'안드레아 세니에'는 이탈리아 작곡가 움베르토 조르다노(Umberto Giordano)의 대표작으로, 1896년 라 스칼라 극장 초연 당시 대본작가 루이지 일리카(Luigi Illica)가 커튼콜을 받을 만큼 극적인 구성과 문학성을 인정받았다.

세니에 역에는 세계 무대에서 활약 중인 테너 호바네스 아야바즈안, 연인 만달레나 역에는 소프라노 릴라 리(이윤정), 혁명가 제라르 역에는 바리톤 오승용이 출연한다.

연출을 맡은 김지영은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상징하는 링 구조물의 '각도'에 변화를 주며 막의 전개에 따라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한다.

은 완성도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최철 광주시립오페라단 예술감독은 "이번 공연은 도시 간 교류를 넘어 광주와 대구가 함께 문화예술의 시너지를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으로 지역 간 문화예술의 선진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시작된 '오페라 달빛동맹'은 올해 다섯 번째 무대로 결실을 맺는다. 이번 '안드레아 세니에' 공연은 오는 29일 오후 7시30분, 30일 오후 3시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열린다.

관람료는 V석 12만원, R석 8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C석 1만원으로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과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최명진기자

'광주 버스킹월드컵' 시민 심사위원 모집

동구문화관광재단, 24일까지 접수

동구문화관광재단은 12일 '제4회 광주 버스킹월드컵' 결선 진출팀 공연을 평가할 시민 심사위원 3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민심사위원 운영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하고, 더 나아가 시민들이 단순 관객을 넘어 축제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만큼 시민들과의 접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시민심사위원 제도'와 '추천곡 제도' 등을 새롭게 도입했다. 시민심사위원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음악을 사랑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오는 24일까지 공식 누리집(www.buskingworldcup.com)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시민심사위원에게는 '광주 버스킹월드컵' 공식 굿즈와 활동비가 제공된다. 선발된 총 30명의 시민심사위원은 오는 10월 19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에서 열린다.

는 결선 무대에 참여해 공연을 관람하고 현장 투표 시스템을 통해 평가를 진행한다.

시민심사 결과는 전문 심사단 평가와 함께 실시간으로 집계돼 최종 결선 결과에 반영된다.

또한 올해는 경연 참가 뮤지션들에게 K-POP, 추억의 팝송 등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100여 곡의 추천곡을 사전 제공하고, 이를 공연에 선곡할 경우 심사 점수에 반영되도록 했다. 이와 같은 '추천곡 제도'를 통해 관객과의 공감과 몰입도를 높이는 무대를 선사할 계획이다.

한편, 제4회 광주 버스킹월드컵은 오는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하늘마당 및 5·18민주광장 등 동구 일원에서 펼쳐진다. /최명진기자

퇴근 후 즐기는 '사이언스 나이트 페스티벌 19+'

오는 22일 국립광주과학관 성인 관객 대상 문화행사



국립광주과학관은 오는 22일 성인 관객을 위한 '사이언스 나이트 페스티벌 19+'를 개최한다.

'사이언스 나이트 페스티벌 19+'는 과학관이 아이들 중심의 공간을 넘어 성인만을 대상으로 과학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특별 행사로, 지난해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기분 좋은 중독'을 주제로 ▲맛과 리듬에 중독되다(케이타링 및 3인조 혼성밴드 '우물안개구리' 어쿠스틱 콘서트) ▲생각에 빠지다-토크콘서트(다이어트 성공과 실패의 과학, 정재훈 약사) ▲기분 좋은 중독을 허하라(커피 바리스타 체험, 뇌과학 특별전 '신기한

뇌세상' 가이드투어, 초콜릿 분수 미니 디저트 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재영 연구원은 "여름 시즌 뇌과학 특별전에서 영감을 받아 중독을 주제로 행사를 기획했다"며 "음식, 음악, 공연과 강연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참가비는 2만원, 신청은 오는 17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기자



광주에 모인 예술가들, 문화 교류 본격화

'호랑가시나무 창작소' 하반기 입주 작가 활동 시작

국내의 예술가들이 잇따라 '호랑가시나무 창작소'에 입주하면서 광주가 예술적 공존과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호랑가시나무 창작소는 이달부터 하반기 입주 작가들과 함께 새로운 창작 여정을 시작했다. 권승찬·신승엽·이지은 등 한국 작가들과 함께 폴란드의 알리시아 위소스카가 가장 먼저 입주를 마쳤다.

이어 독일의 마틴 라이히, 프랑스의 나탈리에 피레, 모로코의 알바노 에르난데즈, 필리핀의 랄프 롬브레스, 스페인의 아이노아 마르티네즈가 차례로 광주에 도착해 창작소의 문을 열 예정이다.

이 가운데 아이노아 마르티네즈를 비롯해 서영기·이재환·임형삼·권승찬·신승엽·이지은 작가는 현재 대구에서 진행 중인 레지던시 연합전에 참여해 각자 작업 세계를 소개하고 있다. 이들의 발걸음은 오는 9월 여수에서 열릴 국

제미술제로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전반기 입주 작가들 또한 활발한 창작 활동을 펼쳤다. 창작소가 주관한 오픈 토크 프로그램 '도킹 익시비전'을 통해 각자의 예술 세계를 공유했고, 영상 기반 작업을 중심으로 한 '타이니 필름 스크리닝'에서는 시민들과의 교감을 시도했다. 특히 미국 출신 작가 시오반은 레지던시 기간 중 '폴락-크래스너 파운데이션'의 기금 지원 작가로 선정되며 국제적 역량을 인정받았다.

창작소 관계자는 "세계의 예술가들이 광주라는 도시 공간에 녹아들면서 단순한 창작을 넘어선 문화적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들의 활동이 광주에 새로운 예술적 감성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후반기 입주 작가들의 작업은 향후 전시와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예술 애호가들에게 소개될 예정이다. /최명진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지사 061)278-0740
- 남문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